

※기지촌

가. 한미 군사관계

1982년 5월 22일 한미수호조약 이후 한·미 관계는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 이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관계였었다. 1905년의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한반도와 필리핀의 침략을 일본과 교차 승인하였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대한 승전국으로서 한반도 남단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9월 7일 단시간 동안 한국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배치되어 온 미제24군단은 “본관 휘하의 전승군은 일본천황 정부 및 대본영의 명에 따라 서명된 항복문서상의 지역을 점령한다...”라는 내용의 맥아더 사령부 포고문 제1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8일 서울에 입성한 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우리 점령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한 자에 대해서는 점령군의 군법회의의 규정에 따라 사형 또는 그 밖의 형벌에 처할 것”임을 내용으로 한 맥아더 포고문 제2호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식민지 군정의 담당자로 한반도 남단에 상륙한 미국의 세계 전략-사회주의권의 강화 저지와 제3세계에서의 급진적 민족운동 제어를 통한 선진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강화를 골자로 함은 4단계로 대별되는 8·15이후의 한국사회의 군사화계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제1기는(45~50년) 미국의 트루먼독트린으로 표현되는 봉쇄 전략에 기초한 한국 예속화정책과 군사기지화의 기반 조성기이다. 제2기(50~61년)는 미국의 수정된 봉쇄전략과 대항보복전략에 의거한 전쟁수행과 군사기지화의 재건, 강화기이다. 한국전쟁을 거치게 된 이 시기에 미국의 남한문제 개입의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제3기(61~71년)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대항보복 전략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유연반응 전략으로 변한 시기이다. 제4기(71년이후)는 한미일 동맹체제 구축과 자주국방기로서, 자본주의 수호자로서의 부담이 가중되자 미국은 국지적 통합전략의 강화를 통해 방위비 부담을 동맹국에게 전가한다.

나. 미국의 군작전권 소유의 의미

1950년 7월 14일 대구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에 의해 다음날 “대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 군수권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한국전쟁 당시 파견된 UN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한국의 안보와 권력을 상납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 휴전이 성립되어도 상황은 계속되어 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UN군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방위군으로서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획득하게 된다.

‘대전협정’ 이후 주한 미군 사령관은 UN군사령관이라는 직책으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미국을 제외한 15개 참전국이 태국을 마지막으로 모두 철수하게 되자 UN 제30차 총회에서 주한 UN군사령부 해체와 한국 주둔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측 제안이 통과되자 한국내 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1978년 11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근거로 ‘한미 연합군’으로 개편되고 작전 지휘권도 UN에서 한미 연합 사령부로 이전되게 되었다. 이 때 한미연합사협정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협정은 이전의 대전협정처럼 의회의 토의나 양국 대통령 사이의 토의를 거치지 않고 양국 군사 관련자에 의해 체결되며, 한국정부에 의해서 공개가 거부된 까닭에 그 전문에 대한 입수와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의 소재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상황 속에서 80년 한국내의 민주화 요구에 한국군에 의한 참혹한 학살의 자행은 곧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묵인, 방조, 유도 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다. 국내 주둔 미군 상황

주한미군의 편성은, 육군은 동두천에 사령부를 갖고 있는 육군 제8군단으로 87년 3월말 현재 3만1천2백6명이며

해군은 실전부대라기보다 요꼬하마에 사령부를 둔 제7함대의 보급 역할을 담당하며 87년 3월말 현재 7백20명이며, 공군은 오산, 군산, 광주, 대구, 수원, 김포, 강릉, 등에 기지를 두고 있고 87년 3월말 현재 1만1천5백66명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한 미군의 부대나 인원보다도 한반도 내에 엄청난 분량의 핵병기가 외국군 사령관의 휘하에 놓여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 미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은 국방 보고서에서 중동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열세가 나타날 경우 '동시다발전략'을 사용하여 북한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시아 미동맹군에 의한 핵공격을 호언했던 바 있다.

남한에는 대략 6백~1천발 정도의 핵병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종류로는 태평양 지역에 주로 배치하고 있는 핵배낭이란 별명의 ADM, 원격조정이 가능한 특수 핵폭탄 SADM, 그리고 발명가가 직접 한국에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이점을 제시했던 중성자탄 등을 들 수 있겠다.

라. 이른바 양공주

양공주란 해방 이후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많은 견해가 '필요악'이라는 형태의 성격규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민족의 여성이 외국인을 위하여 몇 푼 안되는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부류 대다수 여성들의 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존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0세 안팎의 배고픈 어린 여성들이 배부른 동족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주둔군의 동물적 욕구의 방어벽이 되어도 괜찮다는 논리이다.

양공주의 숫자는 70년대 카터 행정부의 미군 철수계획에 따라 양공주의 숫자도 감소했으나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주한 미지상군 철수정책의 전면 중지와 함께 양공주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부대 근처의 대표적 양공주촌으로는 서울의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군산, 왜관, 송정리, 대구 그리고 송탄을 들 수 있다. 기지촌 주변 매춘인구의 밀집도와 일반 매춘 인구의 밀집도를 비교하여 보면 부산, 동두천, 오산, 파주 등의 도시의 밀집도가 높는데 이것은 미군기지 주변의 매춘인구가 다른 지역의 매춘인구 밀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공주라고 해서 화대-매춘행위에 대한 보수-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준도 아닌데 미군을 상대로만 매춘행위를 하는 양공주가 적잖은 이유는 미군과 결혼만 하면 과거를 잊고 새 생활을 꾸려 나가고 항상 박해만 받아 왔던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이유에서이다. 기지촌에선 한 달에 3백여 쌍, 일년에 3천여 쌍 정도가 실제로 국제결혼을 하는데 불안하고 까다로웠던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개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째 단계로 매춘 행위를 거치고 미군과의 뜻이 맞을 경우 두번째 단계로 계약 동거에 들어간다. 그 후 세번째 단계로 국제결혼을 하게 되어 부부가 된다. 그러나 그 결혼여성의 약 8%만이 미국으로 이민을 하는데 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70~80%가 다시 이혼을 당해 버림받게 되어 교포 사이에서도 가난과 소외의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사실상 국제결혼을 통한 행복의 길은 바늘구멍만큼이나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어느 여인의 증언을 보면 미국에서 받는 한국여인의 학대는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여인의 경우는 다른 미국 여성처럼 대우받을 생각도 안했지만 마치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애기를 낳은 이튿날도 누렇게 뜬 얼굴로 찬물 빨래를 해야만 했다.

대부분의 양공주들은 인정의 교감이 무척이나 황량하다. 그것은 그녀들의 정서가 황량한 때문이라기보다는 노출된 환경의 불량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맨 처음 납치와 속임수에 곁에서 대개 매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처음 순결을 잃고 난 후에 자포자기의 상태를 거치면서 그녀들의 정서와 감정은 대부분 사회에 대한 불신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뼈아픈 과정을 거치며 생활해 나가는 환경은 포주의 착취와 학대, 그리고 미군으로부터의 성적, 물리적 폭행과 성병에 대한 공포 등은 양공주들의 정서를 때마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양공주의 경우엔 성병에 대한 공포와 미군에게서 당하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성병의 경우는 그녀의 경제권의 박탈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검진의료원의 원장이 성병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개의 양공주들에게는 의사는 상당히

귀한 내국인 손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미군과 실랑이가 벌어지면 양공주는 손님에 대한 태도 불량이라는 이유로 포주로부터 심한 구타를 받게 된다. 이때 미군과의 실랑이가 싸움으로 번져 양공주 측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힌 미군들의 경우엔 '한미행정협정'에 의거한 자국 규정에 따라 대개 사역 정도의 제재가 가해질 뿐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양공주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으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미군과의 시비는 양공주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일방적 피해로 끝난다. 한국인과 미군과의 싸움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군 헌병과 미군헌병이 같이 나와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지만 이 협정 자체가 불평등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조사 과정에서부터의 피해를 보게 된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86년 동두천에서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미군 모상병이었다. 치외법권의 대상인 살인 미군의 처리는 미국 측에서 맡게 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불명예 제대와 본국 송환 정도의 제재가 가해졌다고 한다.

대부분 돈을 모으려고 발버등을 치지만 돈을 모으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미군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화대가 비싼 것도 아니며 그나마 벌어들이는 화대의 대부분이 생활비와 포주에게 다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양공주들이 포주를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은 포주들로부터 엄청난 중간착취를 거치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벌이로 이리저리 빼앗기고 보면 나중엔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빚만 늘어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양공주들은 피임에 빠져 왔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포주들로부터 가혹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포주 밑에서 기생하는 감시인 때문에 탈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설령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포주들의 조직망에 의하여 다시 잡혀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잡혀온 경우는 거의 초죽음이 될 때까지 구타와 학대를 받게되며 대개 그런 상태로 빚까지 함께 지고 더 불량한 환경의 매춘지역으로 팔아 넘겨지게 된다.

그들에게서의 삶이란 희망에 대한 추구라기보다는 본능적 생존의 형태일 뿐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 운운 하는 것은 소외된 계층의 삶의 현장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마. 기지촌-이중 국경의 도시 동두천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과 더불어 시행된 철군정책으로 인하여 한때 주춤했던 기지촌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레이건 미행정부의 등장과 때맞춰 발표된 한국 주둔 미지상군 철수정책 전면중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극히 소수의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75%가량의 주민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동두천 기지촌은 미국 군인이라는 특수 집단이 행하는 퇴폐적으로 소비적인 이질 문화의 침범 속에서 절룩거리는 곳이다. 85년 동두천으로 정부로부터 내려온 50억원이 모두 기지촌의 퇴폐사업을 권하는데 다 쓰여졌다고 한다. 이는 현 정권의 대미 예속성이 얼마나 농후한 지를 보여주는 경우이겠다.

현재 이 지역의 매춘여성의 수는 약 5천명, 미군 주둔이 7천명 수준에 이른다. 이들이 기지촌에 들어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나 그중 절대적 이유는 가난이다. 그 외는 결혼가정, 이혼, 직업소개소, 어린이 학대 등 이 대부분이다.

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빚관계로 묶여 있으며, 월리1할을 물어야 하는 딸라 이자 때문에 점점 더 포주의 울가미에 말려들게 된다.

기지촌 여성의 하루는 오후 4시정오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며, 굉장히 잘 버는 여성의 순수입이 월 20~3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악몽의 삶속에서 양색시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좋은 미군을 만나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는 일이다.

동두천에서 결혼서류를 대행해 주는 오피스가 2개소 있는데 이들을 통해 미군과 결혼하는 양색시 수는 한해 1천5백~2천까지 오른다. 그러나 이민간 양색시들이 미국내에서 적응해내지 못하고 미국의 환락가로 빠져든다는 사실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오늘도 동두천 일대의 우리의 딸들이 미군을 붙잡고 웃음을 팔고 있을 것이다
멀리서 김민기의 기지촌이 들려오는 듯하다.